

儒教 受容에 따른 傳統住宅 男性空間의 變遷에 관한 比較研究

-中·韓·日 上流住宅을 중심으로-

윤 일 이

(동명정보대학교 전임강사, 공학박사)

주제어 : 유교, 상류주택, 남성공간, 정방, 사랑채, 좌부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로운 건물 유형의 창조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며, 그것은 또한 문화적 분위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선사회는 16세기를 즈음하여 유교사회로 안정되면서 유교적 특성들이 건축에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文廟, 鄉校 외에 書院, 書堂 등의 새로운 건물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변화에 보수적인 住宅에서도 유교화가 진행되어 우리 전통주택의 근간을 이루었다. 즉 유교의 수용으로 주택에서 가례를 위한 공간이 형성되고 성리학을 신봉하는 남성들의 공간이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학의 수용이 처음에는 중국 유학을 기본으로 해서 점차 한국화했던 것처럼, 주택에서 유교공간도 중국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삼지만 우리나라만의 독자성을 만들어갔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유교라는 하나의 요인이 韓國의 주거에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유사한 문화기반을 가진 中國·日本의 다양한 주택양상과 비교하고자 한다.

유교의 수용은 전통주택의 전체 구성을 재편시

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집을 대표하는 대외적 공간인 남성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례로 奉祭祀와 接賓客을 중시한 조선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상류주택 사랑채는 손님을 접대하고 의례가 행사되는 등 사회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다. 또한 사랑채 구성에는 선비의 이상향이 묻어나고 뛰어난 장인들의 솜씨가 발휘되었기에 조선조의 시대정신이 드러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는 중국·한국·일본의 전통주택 남성공간의 특성을 통해 유교의 수용과정을 비교하는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외형적 문화요인에 반응하는 차별적 거주문화에의 접근이라 하겠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 유교적 특성이 토착화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중·일 상류주택과 비교하고, 이를 위해 比較論의 관점을 기반으로 文化相對論을 참고한다²⁾. 그리고 연구범위는 시대적 변천보다는 중·한·일의 지역적 변천을 다루는 共時的 접근으로, 시대·계층·주택·행태 4가지를 한정하였다.

첫째, 시대범위는 삼국에서 유교가 도입된 시기는 오래되었지만, 한국은 朝鮮時代(1392~1897)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과 건축에 직접적인 변화가

¹⁾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04-2002-000-20100-0)

²⁾ 윤일이, 「퇴계학과 상주학맥의 건축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13권 3호, 2004년 9월, pp.85~87

²⁾ 한상복, 『文化人類學概論』, 서울대출판부, 1985, p.20

일어나므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明·淸時代(1368~1912)와 일본의 江戸時代(1603~1867)를 선정한다. 둘째, 유교는 정치원리로 뿌리내리게 되므로, 계층범위는 상류계급인 한국의 兩班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중국의 紳士, 일본의 武士를 대상으로 삼는다³⁾. 이들은 시대적·사회적 배경아래 자신의 이상과 이념을 건축으로 구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주택은 상류계급이 거주한 중국의 四合院과 한국의 班家와 일본의 武家を 선정하였다. 넓은 지역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전통주택 중에서 四合院은 漢族의 대표적인 주거형으로 공간구성의 원리가 유지되어왔으며, 조선에서는 지배계층인 양반이 거주하는 班家가 유교적 주거규범을 유지하고, 일본의 武家は 고대의 寢殿造에서 중세의 主殿造를 거친 書院造로 지배계층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넷째, 행태범위는 家長을 중심으로 한 남성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로 한정하였다. 유교는 禮樂秩序라고 하여 실천적 행위규범이 공간상에서도 표현되므로 주택 내 남성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외부인·조상·자연과의 만남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택 전체의 분석보다는 유교가 수용되면서 변모하는 남성공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⁴⁾. 이는 중·한·일이라는 차별적 환경에서 유교수용의 다양한 전개를 살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儒敎受容과 傳統住宅

2.1 유교의 수용

思想은 한 민족의 文化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유학은 기원전 6세기경 孔子에 의해 전대의 古書가 정리되어 五經으로 편찬되면서 체계성을 확립하여, 중국

3) 조선은 전기에는 良賤制에 따른 四民의 계층이 형성되었고, 후기에는 兩班·中人·良人·賤人으로 구분되었다. 이때 상류계급은 양반이었다. 조선시대 양반을 세계관과 교류범위의 차이를 근거로 크게 士大夫層·鄉班層·富農層으로 구분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실학의 영향이 나타나는 후기의 부농층은 제외한다.

4) 유교수용은 민가에 비해 상류주택에서, 여성공간에 비해 남성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上流住宅 男性空間을 살펴본다. 이때 상류주택의 남성공간은 한국에서는 사랑채로 명확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 구분이 어려우므로, 남성공간의 범위를 기능을 중시하여 가장이 생활하면서 접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정한다.

표 1. 중·한·일의 역사연표와 유교도입시기

연대	중 국	한 국	일 본	
0	夏 殷 周 秦	삼국시대	고문시대	
	212			BC 37
	三國			
500	晉	통일신라	大和시대	
	南北朝		飛鳥시대	
	隋		奈良시대	
	618		794	
1000	唐	고려시대	平安시대	
	五代		鎌倉시대	
	宋			1192
	南宋			1338
	元			室町시대
1500	1368	1392	室町시대	
	明	조선시대	桃山시대	
	1662		江戸시대	
2000	淸			

뿐 아니라 동양의 주된 사상의 하나가 되었다.

유교의 영향 아래서, 중국에서는 조상숭배와 가족제도가 현저했고, 지식인에게 유교교육은 학문과 교양, 출세와 지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던 한국은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유교가 도입되었고, 조선 건국시 朱子學을 중심으로 한 신유학을 국교로 삼아 상기의 특성들이 자리잡는다⁵⁾. 그렇지만 뒤늦게 우리나라에 수용된 신유학은 발생지인 중국에서보다도 더 오랜 기간,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지배사상으로 존속하게 된다. 일본도 4세기 전후에 유교를 받아들이고, 江戸시대에 조선과 마찬가지로 주자학을 관학으로 승인함으로써 유교가 일본의 사상계를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⁶⁾. 그러나 일본은 전통종교인 神道와 불교에 유교가 섞이면서 서로 공존하는 종교·도덕의 다원적인 사상구조

5)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신유학은 15세기 보급과정을 통해 16세기 양반층을 중심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18세기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6) 河合 敦,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원지역 역, 중앙 M&B, 2000, p.214 : 유학, 특히 朱子學은 德川家康이 林羅山을 정치교문으로 삼은 이후, 官學으로서 권력과 결합되어 그 특권적 지위는 오랫동안 확고부동하였다. 그리고 中江藤樹, 熊澤蕃山 등에서 시작된 陽明學, 유학에 경험적 합리주의를 도입한 貝原益軒, 공자·맹자로의 복귀를 주장한 山鹿素行 등의 훈구파도 초기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를 유지하였다.

유교의 수용에서 중국은 城 단위의 독자적인 생활을 위해 仁을, 한국은 농경사회에서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孝를 가장 중시한 반면, 일본은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藩이나 무사집단에 대한 忠을 중시하였던 차이를 가진다(78).

2.2 사회구조 및 신분제도

중·한·일 근세사회는 土農工商으로 분리된 엄격한 신분질서를 유지하였고 최고의 지배층은 士계층이다. 중국에서는 紳士 한국에서는 兩班으로 문관인 반면, 일본에서는 武士로 무관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중국의 紳士層은 왕권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위한 과거제도를 통해 신진관료계층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대부분 지주층으로 요역을 면제받고 지위를 보장받는 등 공인된 정치·경제·사회적 특권과 힘을 지녔다. 그들은 사회규범 및 인간들 상호간의 규율 등을 제공하는 유교이념에 입각한 윤리체제의 수호자이자 그 대표자였다.

조선의 兩班은 관료가 되거나 관료예비군으로 행세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토지소유자였으며 사회적으로 지방사회의 지배자였다. 유교정치에 있어서 治者는 四書五經을 탐구하여 仁義禮智의 四德을 체득한 자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양반과 양인의 신분차별이 크고, 또 무반이 폄시되는 문반우위의 사회가 되었다.

일본의 武士계급은 전인구에의 비율은 5~6% 정도로 農工商의 세 계급보다 월등한 특권적 지위와 의식을 가졌고, 같은 무사계급 내에서도 장군을 최고주권자로 하는 엄격한 主從관계를 확립하였다. 무사는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대신에 三綱五倫의 도덕을 수양하며, 仁政을 구현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武士道를 따르게 되었다(9).



그림 1. 紳士·兩班·武士의 모습

2.3 가족제도와 남성의 역할

중·한·일 상류층은 대가족제와 함께 가부장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세분하면 중국은 확대가족 한국과 일본은 직계가족으로 가족구성원에 따른 주택의 배치와 평면에 차이를 가진다.

중국은 宋代 이래로 宗族이 산발적으로 조직되었다. 부계주의, 유교의 친족유대에 대한 존중, 토지소유 경제, 지방결연의 정치적 효용성은 모두 친족원들이 힘을 합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지식인들의 존재도 종족의 형성을 부추겼는데 그들은 족보를 편찬하거나 조상제사를 위한 사당을 지었다. 중국의 가족은 확대가족의 원형으로, 지주·관료 등의 부유계층은 식구가 수십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상속은 재산상속에서 자식간의 균분주의를 취하고 가장권과 제사권도 분할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가 우리나라와 같이 중요하지 않았다.

한국은 17세기를 전후하여 가족·친족제도상에 광범위한 변동이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재산상속, 제사상속, 양자제도, 족보의 기제양식, 혼인거주규칙(孀留婦家)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 재지 양반층의 경제력의 저하와 더불어 재산상속의 형태는 남녀균분상속→남자균분상속→장남우대상속으로 이어진다. 제사상속도 長子奉祀로 이어지는데, 종자의 제사상속은 후손들이 분할하거나 윤제할 경우보다 당내를 하나로 뭉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10). 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봉제사 집빈객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직계가족을 구축하는 상속제도이다.

江戶시대에 가문(이에) 세습시 무사는 영지며 녹봉을 자식에게 넘겨주었다. 이 세습 제도는 장

構成 比較」, 부산대 박은, 2003, pp.5~6

10) 안호룡, 「조선초기 상제의 불교적 요소」, 『한국고·중세 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1990, pp.91~125

7) 김태영, 「유교문화의 돌연변이 일본」, 보고서, 2002, p.33~36

8) 3국에서 유교의 차별적 수용양상을 도시·마을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도시 모습은 황성을 중심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한 축으로 좌우대칭의 질서를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씨족마을을 형성하고 종가를 상위 또는 중심으로 주변에 지가들이 자리잡는 혈연에 따른 구성이며, 이때 종가는 마을의 구심점이자 종가의 사당은 상징적인 장소였다. 이와 비교해 일본의 경우는 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무사의 주택들이 城下町을 이루었고 町人の 거주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계급에 따른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9) 김미나, 「近世 韓·中·日 上流住居의 境界意識에 의한 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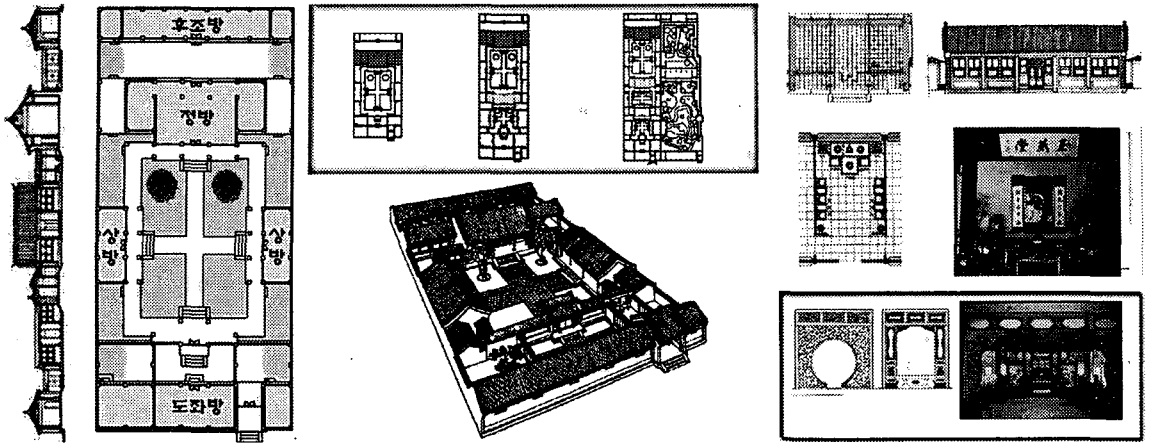


그림 2. 중국의 四合院과 正房(출처: 馬炳懸, 『北京四合院建築』, 1999)

남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식들은 가문에서의 지위가 약했다¹¹⁾. 이처럼 직계가족을 이상형으로 하나 데릴사위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 딸이라도 집을 계승할 수 있으며, 자식이 없을 경우에 姓이 전혀 다른 남도 양자로 받아 들여 가계를 잇는다.

말하자면 중·한·일 전통가족에서 가장의 지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주택 내에서도 가장의 거처는 위계가 높았지만, 중국은 재산권, 한국은 제사권, 일본은 가장권 계승을 중시하는 차이를 가졌다.

3. 中·韓·日 上流住宅의 男性空間

3.1 明·淸時代 四合院과 남성공간

漢族 주거의 기본인 북방의 四合院은 독립된 횡장방형의 4동이 중정에 있는 원자를 둘러싸는 것을 부르는 것이다. 四合院 형식의 주거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중국전역에 분포하고, 각 지방의 자연환경·풍속·관습에 대응해서 다양한 변형이 발생했다. 중국인의 주거관이 반영된 四合院은 중정 중심의 내향적 구성, 좌우대칭의 축적 구성과 위계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¹²⁾.

북경시가의 큰 도로를 따라 들어선 胡同(구획된 주거지)에 면한 四合院 주택은 宗法禮敎의 지배하에서 남북 중축선으로 따라 대칭으로 배치된다. 동남의 모서리에 위치한 대문을 지나 影壁이 있는 前院의 남쪽 건물에는 통상 客房, 書塾, 창고, 하

인방 등이 있다. 중축상의 垂華門을 지나면 원자에 이르고, 원자의 북쪽에 있는 正房은 윗어론 내외의 거주지이고, 동서의 廂房은 아들가족의 거처이다. 때때로 正房의 좌우에는 耳房과 小跨房이 부가되고 후면에 후조방을 두었다. 주택의 사방에는 벽과 담을 둘러 폐쇄적인 반면, 원자 주위에는 회랑을 두르고 중정에는 꽃나무를 심거나 분재를 진열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四合院은 원자가 하나인 1進에서 3~5進까지 규모가 다양하나, 규칙적인 공간구성으로 禮와 道를 근본으로 했던 선비들과 관리들이 선호하였다¹³⁾.

四合院에서 집안의 최연장자가 거처하는 正房은 가족의 거실이면서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관혼상제를 치르고 접객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곳은 내동 중에서 가장 중시되어 높은 지붕, 남향, 품위 있는 장식으로 주택의 실질적·상징적 중심임을 표현했다. 중정이 두 개 이상인 주택에서는, 앞쪽 중정에 자리하는 正房을 廳房으로 구분한다. 이곳은 남자주인이 낮에 기거하는 거실 겸 서재인 동시에 접객공간, 관혼상제의 공간으로 正房의 대외적 기능이 분리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구성원리인 前朝後寢에 따라 주택의 전면에 접객·의례 공간을 배치시킨 것이다. 따라서 廳房까지는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반면, 廳房 후면은 가족의 일상생활이 전개하는 사적 공간으로 구분되었고, 통로도 중심축상에 있는 것은 주인과 손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인들과 여인들은 별도의 통로인 屏風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형의 四合院에서는 주

11) 홍윤기, 『일본문화사』, 서문당, 1999, p.356

12) 曹焜, 『中日居住文化』, 同濟大學出版社, 2002, p.3

13) 손세관, 『넓게 본 중국의 주택(上)』, 열화당, 2001, pp.4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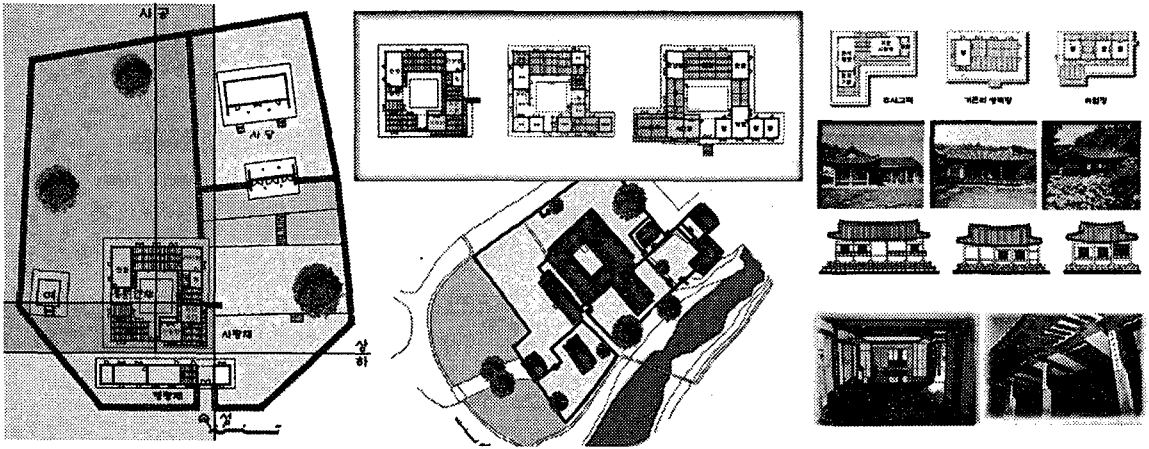


그림 3. 한국 班家和 사랑채(출처: 필자작성)

택부의 측면에 자유롭고 변화있는 원림을 조성하여 書齋, 茶室, 그리고 연회장인 花廳을 두어 주인의 여가생활과 접객을 위한 별도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즉 四合院에서는 가족의 중심공간인 正房에서 접객이 이루어지고 큰 규모의 주택에서는 대외적 공간인 廳房을 따로 두지만 正房의 중요성은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집안의 번성을 위해서 조상의 제사를 중시하여, 일찍부터 제사시설이 형성되어 왔다. 『禮記』에 보면 '군자는 궁실을 건축함에 있어 종묘를 가장 먼저 짓고, 마굿간과 창고를 그 다음에 짓고, 자신의 거실을 맨 나중에 짓는다'라고 하여 종족단결에 큰 의미를 가지는 제례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황실은 宗廟, 유력가족은 家廟, 서민은 집안의 주실에 제단을 설치하였다. 제단에는 위패가 모시고 거기에 조상의 영이 거한다고 여겼다. 의례공간도 陰陽二分論에 근거하여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였다. 四合院에서는 正房의 중심인 祠堂에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가족의 대소사도 항상 이곳에서 행했으므로 모든 일을 조상과 함께 하는 친근감을 표현했다¹⁴⁾.

14) 카지카와아키히로, 김광현, 「『의례』와 『예기』에 나타난 고대중국 의례공간의 성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권 3호, 1999, 3 : 중국에서는 이미 堯·舜 시대에 天神·地祇·5嶽·4瀆을 제사한 기록이 『書經』, 『史記』 등에 실려 있다. 특히 동양에서는 유리 도덕관념의 양양과 함께 조상숭배가 크게 성행하여 조상에 대한 제례가 夏·殷 시대를 거쳐 周代에 확고하게 갖추어졌다. 중국의 조상 숭배는 유교의 발전과 함께 효도 사상과 결부되어 복잡한 의례가 일상생활 속에 침투되었다. 三禮(周禮·儀禮·禮記)를 비롯하여 宋代에 이루어진 『朱子家禮』 등은 한국과 일본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3.2 朝鮮時代 班家和 남성공간

조선시대 班家は 風水地理와 儒佛仙의 사교가 조영에 영향을 미쳐, 대부분 背山臨水의 대지와 口자형 주택을 선호하였다¹⁵⁾¹⁶⁾. 주택의 영역은 보통 사랑채·안채·사랑채·행랑채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유교원리인 聖俗의 구별에 따라 사랑채와 살림채, 上下에 따라 본채와 행랑채, 男女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되었다. 특히 孝의 중시로 조상숭배공간인 사당이 위계성을 가졌고, 남녀유별에 의한 안채와 사랑채 구분이 명확했고, 가문의 성격에 따른 사랑채 공간의 다변화 등이 두드러졌다.

안채는 가족중심공간으로 상징적인 장소이지만 조선중기에 접어들면서 씨족·동족중심의 종법제도가 정착되면서 남성공간인 사랑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때 사랑채는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규모와 성격이 다양해졌다. 대부분의 상류계급인 양반은 성리학을 신봉하는 학자들로서 그들의 주거를 성리학 수양의 도장으로 의도하였고, 풍류를 끌어들이고, 씨족·동족 촌락에서 행사되는 의례공간까지 겸하였다.

조선시대 유교의 수용은 성리학을 신봉하는 남성이 주도하면서, 유교화 양상이 주택 전체뿐만

15)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2002, p.17~18

16) 조선시대 주택형은 풍수적으로는 물론 지위나 경제력이 하락될 경우 口자형을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많은 씨족마을에서 종가들이 완결형에 가까운 口자형을 조영한데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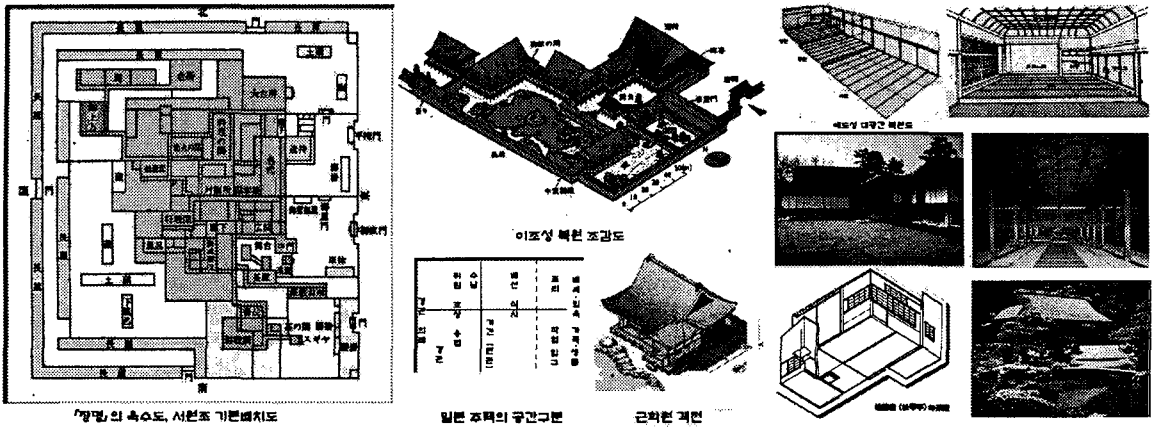


그림 4. 일본 武家와 大廣間·茶室(출처: 宮元健次, 『日本建築のみかた』, 2001)

아니라 남성공간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16세기는 각 지방의 사대부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한편 본격적인 향촌의 지배세력으로 자리잡는 시기로, 성리학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실천에 힘을 기울여 자신들의 거주공간인 사랑채를 修養空間으로 의도하였다. 사랑채, 서재, 정자, 제청 등 남성공간의 확대를 통해 단순히 생활을 위한 집이 아니라 성리학적 사고를 키우고 자연과 융합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講學空間으로 성격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랑채는 접객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 接賓客은 五禮의 하나로서 班家の 사회적 지위나 성격상 특히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다.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는 사랑채로, 중기이후 家중심에서 家門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집안 내에서 남성공간과 접객공간으로 비중이 커졌다. 가장의 정치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랑채가 안채보다 더 크기도 하고 마을·동족 내에서 위계성을 가졌다. 그래서 사랑채는 생활과 접객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하여 안채와는 일정한 물리적·시각적 거리를 유지하였고, 측면마루가 선호되고 다양한 창호로 유동적인 공간과 내·외 연속성을 확보한다. 또한 누마루를 덧붙이거나 다양한 별당을 건립하고 주변에 연당과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것은 상류주택의 계층적 위계를 표시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더불어 의례성격이 더해졌다. 고려말부터 설치되던 家廟는 이후 주거와 생활에서 변화의 싹으로 자리하여, 奉祭祀는 接賓客과 더불어 양반의 班格을 과시하는 것으로 정착되어간다. 더욱이 중기이후 유교의 강화는 喪禮와 祭禮라는 형식을 통하여 종족의 결합을 이루고 중앙관료를 견제하였기에,

명문가일수록 家禮의 법칙은 구체화되고 행사도 격식을 갖추어 간다. 새로운 주생활은 주양식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형이 터부시된 안채는 폐쇄성이 점점 짙어져 상류주택일수록 대외적인 생활의 중심이 사랑채로 이동되어간다¹⁷⁾.

3.3 江戸時代 武家와 남성공간

근세의 일본에는 영주와 가신이 거주하는 城과 城下町の 건축이 활발하였는데, 이때 지어진 영주의 居館은 모두 書院造로 만들어졌다. 서원조는 중세 主殿造에서 무사들의 집객행식이 확대 고정되면서 主殿이 접객 전용건물로 사용하기 시작한 주택양식이다¹⁸⁾.

서원조를 짓는 일정한 기준은 『匠明(쇼오메이)』의 도면을 통해 알 수 있다. 武家の 대지 규모는 대략 사방 1町(약14,850m²)으로, 동쪽의 정문

17) 윤일이, 『朝鮮後期 上流住宅 사랑채의 空間的 特性에 관한 研究』, 부산대 박논, 1999, pp.261~262 : 사랑채가 의례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회적 공간과 종교적 공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의례 장소가 가족의 사회적 공간인 '안대청'에서 외부인과의 사회적 공간인 '사랑채'로 이행되는 것은, 의례가 가족의 범주에서 친족과 동족부락내의 결속과 강화의 범위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18) 西 和夫·穂積和夫, 『일본건축사』, 이무희 건경문 역, 세진사, 1995, p.120 : 중세에 권력을 잡았던 장군들은 자신들의 주거를 平安시대 귀족의 선례에 따라 체계화했는데, 침전을 중심으로 한 침전조 양식은 그 자체가 중세시대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중요한 발전은 건물이 점차 기능에 따라 분화되어 나갔다는 점이었다. 本堂에서의 公的, 私的 공간들 사이에 고정 칸막이를 이용한 분리가 행해졌으며 다른 목적을 지닌 건물은 분리해서 세웠다. 귀족의 주거에서 특히 자주 나타났던 중요한 건물은 會所라는 것으로 이는 문자 그대로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며 무가의 대면의식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다.

인 御成門으로 들어서는 일곽은 접객용 공간으로서 廣間, 御成御殿, 茶室과 書院, 能舞臺와 樂屋이 있다. 중심 근처에 御寢所·書院·對面所 등은 가장의 생활공간이고, 서쪽의 御上方은 부인의 거처이다. 이처럼 書院造는 접객·대면을 위한 비일상적인 외부용 접객공간과 가장의 생활공간, 주부의 생활공간이라는 세 부분의 거주부와 부역을 기본구성으로 하고 있다¹⁹⁾. 즉 주택의 1/3을 차지하는 객실이 내실과 명확히 분리된 접객 위주의 주택구성이라고 하겠다²⁰⁾.

武家の 평면구성은 간 분할이 복잡한 雁行形을 이룬다. 거실은 부지의 남측에 배치된 정원에 접하고, 고정벽은 최소화되고 내부칸막이는 가동되는 장지문으로 여름에 적합한 가옥이다. 따라서 주택내부를 고정된 기능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장지문을 개방시키면 거간과 객간이, 거간과 식당이 하나의 실이 되었고, 또한 실내공간이 정원과도 일체화되었다. 더불어 武家에는 엄격한 주택규제가 있어서 주택지의 규모, 대문의 형태, 본체의 길이, 주거의 규모, 객실의 최대 다다미수 등 세부에 이르기까지 무사의 급여액과 문벌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근세에 지어지는 武家에서 접객공간은 크게 座數(자시끼)²¹⁾와 茶室로 이분되는데, 이들은 규모, 장식 등에서 상이한 모습으로 통합을 피한다. 개방적이고 대규모인 廣間은 손님들의 위계에 따라 상단·중단·하단으로 구분되었고 그 사이에 장지문을 두어 필요에 따라 폐쇄·개방으로 공간의 다변화가 가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를 마시기 위한 다실은 폐쇄적이고 소규모로 조성되었다. 장식에서 廣間에는 違棚(찌기이다나), 付書院(쓰케쇼인), 帳台構(쵸오다가마에) 등이 격식화된 반면, 다실에서는 數寄屋風の 비대칭의 극치로 草庵的인 무장식과 손대지 않은 자연의 취향을 드러내고 기능상으로는 차를 마시는 불교의 전통을 담고

있다.

일본의 주택에는 신단인 神棚(가미다나)과 조상의 위패를 모셔 놓은 佛壇이 있다. 일본인은 조상을 실명이 아닌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또 개인과 가문의 조상보다는 藩主의 조상을 신으로 모셔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강호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사원의 관할 안에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행하였다. 이처럼 일본주택에서 의례는 불교적 특성이 잔존하고 생활 관습적이다.

4. 中·韓·日 住宅 男性空間의 比較

4.1 中·韓·日 주택 남성공간의 건축특성

1) 남성공간의 배치와 구성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소유함으로써 실존공간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 중국·한국·일본은 오랜 역사기간을 통하여 유교가 문화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어서 상류주택의 배치에는 유교적 실천인 長幼有序, 男女有別, 尊卑 등에 따라 가장과 가족, 남자와 여자, 주인과 손님이 출입할 수 있는 방이나 정원 등의 공간이 엄격히 구별되었다.

중국의 四合院은 대칭형을 이루며 가정의 위계를 반영한 건축군체의 조합으로 正房, 廂房, 도좌방 등 건축물간에 주종관계가 분명하고, 명확한 동선을 가지고 있다. 가장의 공간이며 의례·접객공간인 正房과 廳房이 주택중심부인 남북축 위에 배치되어, 前朝後寢에 따른 점진적인 위계 질서를 이룬다. 이때 廳房이 분리되더라도 正房을 더 중시하여 접객의 사회적 기능보다는 가족 내 가장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班家は 유교의 수용으로 중국의 주택을 이상향으로 삼지만 우리 고유의 주택을 형성해 나간다. 주택형은 ㅍ·ㅍ·ㅍ·ㅍ 자형으로 대칭을 유지하면서도, 동북에 배치된 사당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구성과 경사지, 온돌의 사용으로 일부가 비대칭적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남녀구별을 우선하여 살림채는 안채와 사랑채로 엄격히 구별되는데, 사랑채는 폐쇄적인 안채와는 달리 개방적이며 외부에 가까운 주택 전면에 배치되어 대외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점점 더 중시되어간다.

일본주택은 유교를 수용하지만 중국·한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즉 무관인 武士가 집권하는 사회구조상 주택 내에서 유교는 소극적으로 수

19) 太田博太郎, 『일본건축사』, 박언근 역, 발인, 1994, p.179

20) 新建築學, 『新建築學大系7-住居論』, 대광서림, 1991, p.10

21) 座數가 중요한 체에서 돌출한 형식은 최고의 격식으로 특별한 것으로서 몸체의 외부에 별도로 붙고 廣間이라고 불려진다. 상급에는 廣間, 書院, 중급이하에는 座數가 별도로 되고, 그것은 '외향적인 접객실의 성격을 가진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外部書院과 玄關이 가옥의 전면에 부가된 형태도 있다. 따라서 외측에 위치한 자시끼는 본래 접객, 응대의 양기능을 가진 격식 있는 공간이었다. 또 2~3실 정도로 구성된 소규모의 무가주택에서는 주인의 거간에 접용하는 경우도 있다.

용되어 불교 특성이 잔존하였다. 武家は 외정을 가진 비대칭의 일체형으로 전면에 객실, 후면에 내실을 두고 동측에 일상공간과 서측에 비밀상의 레공간으로 구분되었다.

남성공간의 확장시에 四合院은 남북의 종축방향으로 院落을 추가시키는 원칙이 지켜져 대칭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변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班家は 口자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랑채 영역에 채를 덧붙이거나 별동을 건립하는 등 결합방식이 자유로워서 집집마다 다양한 구성을 이룬다. 그리고 일본의 武家は 雁行形(기러기형)의 사선으로 확장되어 비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주택의 영역구성에서 四合院은 남자하인·손님공간→주인공간→여자하인공간의 순으로, 입구에서부터 공적-반공적-사적영역을 이루며, 주택의 중심에 가장공간이 배치되어 중심을 주변보다 중시하는 위계적 구성이다. 班家は 행랑채→사랑채→안채→사당채의 순으로, 전면에서 후면으로 갈수록 下에서 上으로, 男에서 女로, 俗에서 聖의 공간으로 배치되고 안채와 더불어 사랑채를 중시하는 다핵구성을 이룬다. 武家は 크게 전면의 객실과 후면의 내실로 구분되어, 접객시에만 객실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가족은 내실에서 거주하였다.

四合院의 기본단위인 청은 횡장방향의 一字형으로, 공적공간인 堂과 사적공간인 臥室이 와실-당-와실로 소위 一明二暗의 공간구성을 이룬다. 正房과 廳房도 3칸 혹은 5칸의 대칭적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과거 봉건시대의 엄격한 질서가 적용된

결과이다. 외벽은 목조와 벽돌조이고 내부에는 세밀한 문양이 가득한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하지만 전체적으로 폐쇄적이다. 반면 班家の 사랑채 구성은 사랑방과 사랑대청을 기본으로 측면마루형이 선호되어 비대칭적이다. 벽체는 주택 내에서 가장 많은 창호를 두었고 간 사이에 들개열문을 두어 필요시 공간을 하나로 통합시키기도 하고 내외부를 연결하는 등 반개방적이다. 일본의 武家は 기본적으로 토간과 마루공간이 결합되고, 마루공간은 동일한 단위공간이 반복되거나 대공간이 칸지름으로 분할되어 있고, 퇴가 부가된다. 주택평면은 요철이 심해 복잡하지만 창을 열면 외부와 내부가 일체를 이룬다.

2) 남성공간의 기능과 의미

중·한·일 삼국은 다같이 유교를 받아들이고 가부장제로 남성공간이 중시되지만, 유교 수용의 양상과 가장의 성격 차이로 주택구성과 마을구성이 달리 나타난다.

첫째, 유교 수용의 양상에 차이를 가진다. 중국은 仁을 중시하여, 주택내 일정한 관계 즉 4개의 동으로 구성된 원락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인 조영원칙 하에서 正房이 주택중심에 자리한다. 한국은 孝를 중시하여, 주택내 사당이 중시되었고 이에 따라 사랑채에 의례의 성격이 부가되었다. 반면 忠을 중시한 일본에서 유교는 무사의 교양에 머물러 주택에서는 座敷가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부에만 수용되었다. 즉 유교수용에 따른 전통주택의 구성은 중국은 전통적인 유교적 주거형식이 확립된 후 그 원칙이 지속되면서 다양화하고, 한국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교건축을 시도하여 유교적 남성공간이 발생하여 정착하고, 일본은 기존의 접객공간에 약간의 변화를 가미하는 정도에 그쳤다.

둘째, 3국의 상류계층은 紳士, 兩班, 武士라는 성격차이로 주택구성과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가족공간의 중심에 접객장소가 위치하고, 한국은 여성공간과 분리된 남성공간에 접객장소가 구성되고, 일본은 가족공간과 분리된 곳에 접객공간이 자리한다. 더불어 紳士는 접대시 연회를 베풀고 文才를 겨루어²²⁾ 연회장과 정자 등을 별도로 지었고, 兩班은 詩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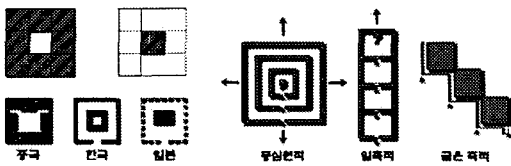


그림 5. 저주주택의 패시브사관 공간화자 (출처:曹焯, 『中日居住文化』,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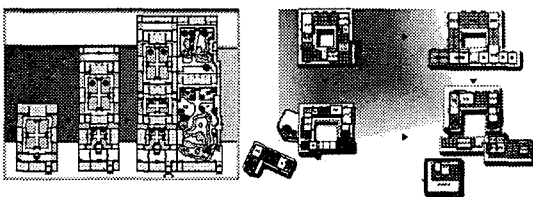


그림 6. 四合院과 班家の 공간확장

22) 자크 제르네, 『전통중국인의 일상생활』, 김영제 역, 신서원, 1995, p.69

講學을 즐겨하므로 정자와 서재 등을 조영하였고, 武士는 차와 연극을 즐겨서 다실과 무대를 만들었다.

셋째, 3국 남성공간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正房은 가족의 공적공간, 접객공간, 의례공간을 겸하며, 확장시 일부 기능이 중축상의 廳房으로 분리되기 하지만 가족내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유지되었다. 한국의 사랑채는 남자가족의 생활공간·접객공간이고 때때로 의례공간을 겸한다. 확장시에는 접객의 성격에 따라 책을 읽고 강학하는 書堂, 풍류를 즐기는 亭子, 의례를 행하는 祭廳 등으로 다양하게 분리되었으며, 가족중심공간의 기능은 안채에 주고 사랑채는 대외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 중시하였다. 일본의 座敷는 가족공간과 완전히 구분된 접객공간으로 주택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실이 상단·중단·하단으로 세밀하게 분화하여 무사신분에 따른 접객을 가능케 하였다.

넷째, 중·한·일 상류주택의 남성공간은 집안을 대표하며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마을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주택은 도시에 일률적으로 구획된 가로 내에 자리하고, 正房은 주택 중심에 자리하여 도성내 궁전처럼 위요적 구성을 이룬다. 한국은 혈연으로 구성된 씨족마을을 이루어 宗家를 상위 또는 중심으로 支家들이 자리하는 위계적 구성을 이룬다. 제례가 중시되는 마을에서 사랑채는 주택전면에 자리하며 열린 사회공간으로서 자리하였다. 일본은 領主를 중심으로 한 도성에서 공식적인 대면의식이 武家の 객실에서 이루어져 座敷는 규모와 장식에 차등을 두었다. 즉 正房은 주택내 구심점으로서 사랑채와 座敷는 마을내를 연결하는 결절점(Node)으로서 자리하였다.

4.2 中·韓·日 주택 남성공간의 禮制의 秩序

유교는 禮樂秩序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禮는 인식원리가 아니라 실천적 행위규범으로서 인류관계와 사회정치적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공간상에서도 표현되므로, 중·한·일 전통주택의 남성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외부인, 조상, 자연과의 관계로 살펴본다.

‘가족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중국의 주택은 陰陽과 儒敎의 秩序에 의한 규칙이 명확하게 자리잡

고 있다. 각 세대는 동으로 구분되고, 동 내에서는 당과 와실로 公私가 구별되고 각 와실은 男女로 구분된다. 즉 주택은 세대별>공사별>남녀별로 구별되고, 원자와 당은 건물간 와실간의 완충역할을 하였다. 조선의 班家는 聖俗에 따라 사당과 살림채로, 살림채는 다시 男女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로, 각 채는 公私에 의해 마루와 방으로 나뉘고 다시 長幼에 따라 큰사랑과 작은사랑으로 분리되었다. 즉 班家は 남녀별>공사별>세대별로 분리되었고, 안마당과 마루는 남녀간·세대간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매개공간이다. 반면 일본의 武家は 외부손님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리를 추구하지만 가족간에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상당히 약한 편이다. 객실은 접객시에만 활용하는 의례적·비일상 공간이고 내실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상적 공간이다. 武家は 공사별 분리는 명확한 반면 남녀별·세대별 분리는 약해 방 사이에는 완충공간 없이 간단한 장지문으로만 설치되었다.

중국은 세대구분을 우선시 하여 正房과 廳房은 가족공간의 중심인 중축 상에 자리잡고, 한국은 남녀구분을 중시하여 사랑채는 안채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외부에 가까운 전면에 자리하였다. 일본은 가족공간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접객공간이 주택의 전면부에 자리하였다. 3국의 주택에서 중국은 중용적 구성으로 現實的·實用的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사당을 중시하고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宗教的·儀禮的이며, 일본은 접객공간의 비중이 커서 象徴的인 특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외부인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3국의 상류주택에서 남성공간이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접객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나라별로 고유색을 띤다. 四合院에서 正房의 조당이 가족의 공적공간·접객공간·의례공간을 겸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별도의 접객공간인 廳房이 전면부에 조영되어 가족공간과 접객공간이 분리되었다. 이때 손님은 가장이 허락하였을 때에 廳房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조선의 班家에서 사랑채는 남성가족의 생활공간·접객공간으로 꾸며졌다. 그래서 사랑채는 가족과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차단장치를 두면서도 접객을 위한 풍류적 구성을 추구하였다. 남성공간은 기능에 따라 사랑채, 별당, 서당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손님은 사랑채까지만 진입할 수 있었다. 일본의 武家에서 객실은 의례가 행사되는

공간으로서 집 밖에서 座數에 도착하기까지의 일련의 공간은 공식적인 장소로 설정되었고, 손님이 움직이는 동선은 따로 구분되었다. 즉 남성공간 성격이 중국은 가족생활·접객 공간을 겸한다면 한국은 여성과 분리된 남성생활·접객 공간으로 생활과 의례가 동시에 중시되었고 일본은 독립된 접객공간으로 접객위주의 구성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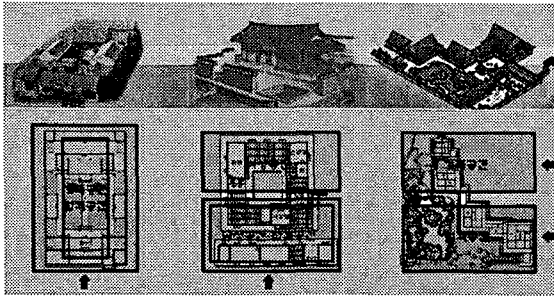


그림 7. 중·한·일 외부인과의 만남



그림 8. 중·한·일 자연과의 만남

‘조상과의 만남’인 제례를 중시하는 것은 삼국이 공통적이지만, 가계계승의 방법에 따라 주양식과 주행태에 차이를 드러낸다. 중국은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조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셨고, 유력가족은 가묘를 만들어 의례를 행하였지만, 재산의 균등분배와 제사의 순환으로 종가라는 개념이 약하고 주택들은 균등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장남우대상속을 통하여 종가를 중심으로 씨족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때 제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택구성도 사당을 상위로 하는 위계적 구성으로 사랑채는 사당에 근접해 지어졌다. 특히 종가에는 제사를 위한 별도의 제청을 두거나 사랑채가 제청을 겸하기도 하여 상징적·의례적 의미를 가진다.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로 조상에 대한 인식보다는 현세를 중시하고 먼 옛날부터 藩主의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불교적 양상이 강하다.

‘자연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동양의 건축은 자

연과의 조화·일치를 추구하였다. 중국의 정원은 직선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자연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여, 유교풍의 주택과 달리 도교풍의 특색을 드러낸다. 반면 조선의 班家에는 사랑채 근처에 수양과 접객을 위한 정원이 구성되는데, 方池와 造山을 조영하고 개념적으로 자연관을 확대하여 중국보다 더 유교적인 분위기를 갖는다. 일본의 정원은 자연 속에서 융합하고자, 주택 형태는 가는 나무기둥을 세우고 미닫이문(障子)을 끼워 반내부 공간인 珈마루(縁側)를 돌리는 것이 기본이어서 문을 열면 자연과 실내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正房은 전면만 개방된 폐쇄적인 구성이고, 사랑채는 측면마루형에 많은 창호로 반개방적이고, 廣間은 아주 개방적이다. 이러한 구성은 기후에 따른 특성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교류하고자 하는 차별적 자연관의 반영이라고도 하겠다.

5. 결 론

유교라는 하나의 요인이 유사한 문화기반을 가진 중국·한국·일본에 수용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 중 상류주택 남성공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3국의 남성공간은 가부장제에 따른 주거의 대표공간이라는 동질성과 신사·양반·무사에 따른 문화·의식·생활양식·사회조직 등의 차별성도 가지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유교의 수용은 3국의 상류주택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장유유서·남녀유별·존비 등에 따라 세대별·남녀별·상하별로 공간이 구분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세대별 구분, 한국은 남녀별 구분, 일본은 공사별 구분을 우선시하였다.
2. 3국의 남성공간은 가부장제로 인하여 가족내 중심공간이면서 대외적 접객공간으로 배치와 구성에 대표성과 위계성을 가지지만 성격에 차이를 가졌다. 중국의 正房은 가족공간의 중심이면서 접객공간·의례공간을 겸하여 주택중심에 자리하고, 한국의 사랑채는 남성가족공간이면서 접객공간으로 주택전면에 배치되고, 일본의 座數는 접객공간으로만 사용되어 가족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주택전면에 위치한다. 이는 가장이 문관·무관이라는 차이에 기인하고 이로 인해 손님이 주택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에 차이를 가졌다.

3. 상류주택의 평면구성에서 남성공간이 확장될 경우에는 중국은 4동의 원락을 중심으로 남북축으로 1진씩 더해져 대칭적 구성을 유지하고, 한국은 口자형을 기본으로 채를 덧붙이거나 별동을 건립하여 대칭성과 비대칭성이 공존하고, 일본은 요철이 심한 일체형으로 雁行形의 사선으로 간분화하여 비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4. 중국·한국·일본의 상류주택의 남성공간에서 중시하는 만남은 같지만 경중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중국은 가족과의 만남을, 한국은 조상과의 만남을, 일본은 접객을 중시하는 차이를 가진다.
19. 宮元健次, 『日本建築のみかた』, 學藝出版社, 2001

참고문헌

1. 荊其敏, 『중국전통민가』, 한동수 역, 발언, 1994
2. 劉敦楨, 『中國の住宅』, 鹿島出版會, 소화51년
3. 王基明, 『北京四合院』, 中國建築工並出版社, 1996
4. 김미나, 『近世 韓·中·日 上流住居의 境界意識에 의한 空間構成 比較』, 부산대 박논, 2003
5. 김태영, 『유교문화의 돌연변이 일본』, 보고서, 2002
6. 김택규, 『한·일문화 비교론-답은 뿌리 다른 문화-』, 문덕사, 1993
7. 손세관, 『넓게 본 중국의 주택(上下)』, 열화당, 2001
8. 윤일이, 『朝鮮後期 上流住宅 사랑채의 空間的 特性에 관한 研究』, 부산대 박논, 1999
9. 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0. 윤장섭, 『일본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1.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사, 2003
12. 保坂陽一郎, 『境界의 形態』, 진경돈 역, 집문사, 1991
13. 曹火弔, 『中日居住文化』, 同濟大學出版社, 2002
14. 西 和夫·穂積和夫, 『일본건축사』, 이무희·진경돈 역, 세진사, 1995
15. 新建築學, 『新建築學大系7-住居論』, 대광서림, 1991
16. 宇杉和夫, 『日本住宅의 空間學』, 理工圖書, 평성9년
17. 吉田鐵郎, 『日本の住宅』, 鹿島出版會, 2002
18. 平井 聖, 『日本住宅의 歷史』, 學藝出版社, 1980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 of the Space Arrangement for Men in the Traditional House as to Importing the Confucianism

- Focused on the Upper Class House of Korea, China and Japan -

Youn, Lily

(Doctor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a space for man in upper classes house that is one of appeared characteristics as Korea, China and Japan imported Confucianism become common cultural base in these countries. Because a space for man in these countries has the same nature represented as a typical space in a upper classes house, and this space is differentiated by regional features, a way of thinking, a way of life and social structure as well, these characteristics are compared one another.

Import of Confucianism influenced formation of a upper classes house and the spaces of the house are divided by generation, sexuality and classes. A space for man become a center of the house as well as a space for reception in accordance with patriarchy because this space stands for hierarchy of the house. A space for man of each country, Korea, China and Japan, has differences; that is, Chinese Jeongbang is used as a space for family as well as for guests; Korean Sarangchae is for only men and used as a reception space; Japanese Zasiki is used just for reception. These differences among countries are caused by owner's class, a civil officer or a military officer, and this class differentiated the characteristics of reception for guest. Even though the these countries take the space for man for meeting, Chinese is for family, Korean is for ancestors and Japanese is for guests.

Keywords : Confucianism, the Upper-Class House, a space for man, Jeongbang, Sarang-chae, Zasiki
